

SERMON 24 September 2017

관대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 시간, 자원, 그리고 사랑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또 다른 관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대한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할 때, 저는 그런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은 때때로 회피하기 어렵고, 매우 인색하고, 한정적이고, 자기 방어와 승진에 대해 단호하게 주장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 가지의 관점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결혼 투표에 관한 발언은 이것의 명백한 예입니다. 그 연설은 거의 의식 교양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논의의 양면에, 말하는 사람들은 투표가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커뮤니티의 일부이기도 한 동성연애자들에게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지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받은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듣고 있는 것에 의해 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관대함과 존경심,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서 있을

때마다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버튼을 눌러 "잠금"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ood Weekend magazine by David Lester 지난 주말 잡지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사촌과의 만남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다섯 살 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첫 날에 그는 그의 사촌을 데리고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가 차를 세우고 거의 그의 사촌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정치를 논하지 않는 되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의견을 형성한 인생에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그것을 하기에 충분히 관대하지 못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우리 주변의 너그러움의 결핍을 보고 있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대함은 상당히 자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관대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종교적인 기도는 많은 다양한 배경, 인종, 문화, 신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축하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들의 관대함의 본질에 영감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공익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신념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 하도록 만듭니다.

진정으로 관대함은 겸손과 존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반응을 꽤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토대로 변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심지어 매우 어린 아이들조차 정의롭고 심지어 더 많은 불공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장 아장 걷는 아기로부터 장난감을 낚아챌 때, 대개 매우 시끄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배울 때, 어린이들은 곧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아이들이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인생이 종종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공평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너무 방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가지고, 의료시설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죄책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허용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를 위한 투쟁이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정말로 복음의

중심에 있는 너그러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그러움과 정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우리 제자도의 마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마태 복음서에서 나온 비유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가 고용한 일꾼들은 그의 포도 밭으로 갑니다. 그는 그 첫 번째 일꾼들과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통해 듣기로는, 그는 하루에 3 번씩 시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랜스톤에서 주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는 날 히스파닉들이 광장타운에, 하루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러 주기를 바라며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치열한 생존을 보여 줍니다. 비유에서는 참을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그 마지막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줍니다: 일하는 날이 끝나고 사람들은 그들의 급료를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뒤 줄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맨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그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보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불한 내용을 잃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대로 일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불공평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 밭 주인이 물었다. "내가 관대해서 당신들이 부러워합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입니다! 그들은 그 관대함을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를 다른 비유와 연결합니다: 누가 복음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동생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분이 상한 장자 증후군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그는 또한 특별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관대함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뒷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이 나중 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관점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전적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관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무엇을 듣고 볼 수 있기 위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종종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Peter Schafffe 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는 살리에리와 모짜르트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근면한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십대 때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과 부를 물러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음악을 작곡할 것이다라고 선언 합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대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는 불건전한 삶의 스타일로 살고 있었고 살리에리 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음악을 작곡하였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안 되었다. "이건 불공평해!"

저는 종종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정의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압도적으로 관대합니다.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자신 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시드니 교외의 한 교회에서 여성 단체의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소 엄숙한 성경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관대함을 반영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많은 옷들과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꽃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관대함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신성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정의로움을 흡수할 수 있을 때부터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함이 우리를 다시 한번 포옹하고 환영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에서 그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나이가 든 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축하파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정의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을 돋는다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넓혀 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